

사설

‘폭력근절 소위’에 거는 기대

조계종에 ‘종단폭력 근절대책 소위원회’가 구성돼 활동을 시작한다. 해인사 선방 스님들의 실상사에서의 폭력이 이번 위원회 구성의 직접적 계기가 된 셈이지만 이같은 종단차원의 대책은 진작 나왔어야 했다는 생각이다. 단식기도에 들어간 실상사 대중들의 참회문은 폭력을 ‘종단의 고질적 병폐, 뿌리깊은 업보, 혼숨되고 잠재돼 있는, 그래서 언제든 분출되고야 말 화산’으로 지적했다. 종단의 폭력문제에 관한 한 이같은 실상사 측 지적은 옳다. 지난 98년 총무원 장선거를 둘러싸고 벌였던 폭력사태는 불자들에게 얼마나 큰 상실감과 부끄러움을 안겨 주었으며 세계 속에서의 한국불교 이미지 또한 얼마나 훼손시켰던가.

법을 따르는 불교종단에 분규와 폭력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낭패스러운 일이다. 있어서는 안되며 있을 수도 없는 것을 쉬쉬 하고 무조건 덮는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종단도 자각한 것이 아려져진다.

‘폭력근절 소위’의 활동으로 인해 ‘폭력의 싹’이 뿌리까지 도려내졌으면 한다. 물리적 폭력은 세속에서도 지탄받으며 추방되어야 할 일로 본다. 어떤 명분으로도 불교종단 안에 폭력이 발붙여서는 안 된다. 물론 어느 집단이든 집단 안 분쟁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 다만 그 분쟁을 어떻게 지혜롭게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느냐에 그 집단의 격이 정해진다.

종단 내 혼숨된 폭력의 역사적 내력을 따지기 보다 승단 전체의 폭력 종식을 의지를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총합된 결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폭력근절 소위’의 첫 과제가 돼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 종교연대 필요성

환경문제는 미국과 같은 생활양식을 지향하면서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의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데서 발생한 엄청난 자원소비에 대한 압박으로 발생한 문제이다. 환경문제의 해법은 결국 물질적인 풍요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풍요를 추구하는 것이다. 종교의 본래의 가르침 그대로의 삶을 사는 것이며 따라서 환경운동은 진정한 종교성의 회복운동이다.

환경운동과 그 연대활동은 대단히 중요하다. 최근에 지리산 담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리산 주변의 종교조직과 사회단체가 만든 지리산 열린연대, 영광의 핵발전소를 저지하기 위한 종교간의 연대활동, 새만금간척을 반대하는 불교와 천주교의 연대활동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세계의 환경운동은 생물지역주의(Bioregionalism)의 원칙에 의거하여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지리산을 지키는 종교연대, 섬진강을 지키는 종교연합, 덕유산, 낙동강, 한강, 태백산을 지키는 종교인 연합등, 지역간의 종교연대가 만들어져서 지역에 기반한 많은 종교 간의 연대활동이 전개될 것 기대한다.

종교는 기도와 수행이라는 훌륭한 자기변화와 자기승화의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는 점은 더욱더 큰 인류의 자산인 것이다. 더욱이 종교환경운동의 대화와 연대경험이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종교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간의 갈등, 남북간의 갈등 등, 분열과 대립의 시대, 통합의 기운을 만들어내는 훌륭한 사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긴밀한 유대대로 내실있는 많은 활동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지난 7월 9일부터 11일까지 의정부의 천주교서학교구 한마음수련원에서는 불교, 원불교, 개신교, 천주교에서 환경활동을 하고 있는 신부와 목사, 스님과 교무를 비롯 약 120명이 모여서 열린 대화마당을 가졌다. 이 자리는 위에서 언급한 중대한 의미를 포함하여 종교환경운동이 특별히 할 수 있는 더 많은 가능성과 임무를 확인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고 또 종교인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자리였다고 본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조직은 바로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종교 조직이다. 따라서 이 종교조직의 공동실천은 한국사회에서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실질적인 해결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종교

재정 공개·청규 마련 시급

물질만능병폐 치유 종교별 전통 확립도

종교개혁 NGO 네트워크 워크숍서 제기

종교계의 재정공개운동, 소비합약문화 개선운동(고급승용차, 골프, 고급 유흥주점, 호텔 이용 자체를 위한 워크숍이 처음으로 열려 관심을 모았다.

‘개혁을 위한 종교NGO 네트워크’는 6-7일 이틀간 서울 천주교 담십리 성당에서 ‘재정 청규 마련을 위한 교단의 역사적 경험과 과제’를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참여불교계가연대, 기독교인사회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등 네트워크 주관단체를 중심으로 각 종교별 10여명이 참가한 이번 워크숍은 재정운영과 관련한 교단의 경험과 과제에 대한 사례 발표에 이어 공동 과제 모색을 위한 종합토론의 순으로 진행됐다.

불교계 발제자로 나선 윤남진 재가연대 기획실장은 “교단의 재정 수입이 (출가수행자) 구성원들에게 균등히 배분되지 않고 있고,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교단법규(사설사업 등록 및 관리법)가 제정되는 등 전통 재정청규가 붕괴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교 재정운영 청규는 출가공동체 내부에서 지켜야 할 청규와 교단운영 청규, 사회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청규 등 3개 분야로 나눠 과제를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실장은 출가공동체 내부에서 지켜야 할 청규로 △탁발 무소유, 소유지족의 청빈한 생활태도 △보시물의 평등 분배 △모든 스님들에게 기본 유지비 지급 △사적 재

산 취득의 최대한 억제 등을 들었다. 또 교단 운영에서 지켜야 할 청규로는 △자발적인 시주와 건전한 사업 및 활동을 통한 재정 충당 △종교시설의 사적 매매 금지 △출·재가가 함께 참여하는 재정운영 구조 마련 △전통적 종무원 고용 및 생계보조 △사회적 회향 등을 들었다. 이밖에 대사회 관계에서는 △국법준수 △국고보조시 투명성 청렴성 유지 등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개신교 사례발표자인 안창도 기독교연대 평신도협의회장은 “교회 재정의 투명, 투명하지 못한 집행과 사유화, 무분별한 재정 사용을 개선하기 위해 ‘교회 헌금 바로 사용하기 운동’ 등 재정개혁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가톨릭계 발제자인 김선실 천정연 교회쇄신위원장은 “초기 교회 공동체에서는 모든 재산은 공동 소유하였고, 남는 물건은 집집마다 나누어 주었고, 또 수도회 등에서도 규율하는 탁발의 전통이 있었다”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 가난한 이들을 위한 지출예산의 증대(현행 5.6%), 호화로운 건물 신축의 자제 등을 실천하는 것이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종합토론에서 참가자들은 물질만능주의의 병폐를 치유할 만한 전통이 각 종교별로 훌륭히 갖추어져 있다는데 공감하고, 이 전통을 지켜나가는 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a.com



포교사단 생명살리기 체험학습

26~29일 실상사 수련회

조계종 포교사단이 26일부터 29일까지 남원 실상사에서 하계 수련회를 갖는다.

이번 여름 수련회는 이른바 자기수행과 사회적 실천에 중점을 두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것이 특징. 이전까지 불교계 단체들의 수련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다.

‘성찰과 대인의 문화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열리는 수련회는 ‘인드라마세계관과 삶의 철학’

‘농장공동체 생활과 도농공동체 운동’ ‘우리나라 귀농운동과 불교계의 역할’ ‘자연과 함께 하는 지역학교’ ‘지역불교의 활성화와 생명문화를 위한 포교사의 활동 방향’ 등 21세기의 시대적 가치인 ‘생명살림’에 대한 5개 강의가 진행된다.

강의와 함께 현장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먼저 포교사들이 조를 나눠 농장과 노작체험을 하면서 모든 작업이 가지는 기술적인 면과 의미에 대해 학습한다. 또 숲속에서 숲이 지니는 가치에 대한

명상과 함께 숲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방법을 배우고, 오솔길을 맨발로 걸으면서 자연과 만나는 ‘숲과의 만남’ 체험시간도 갖는다. 체험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작체험교사와 숲 전문가, 새 전문가가 초빙된다.

포교사단 하영태 사무국장은 “이제는 포교사들도 사회적 실천에 앞장서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에서 같이 수련회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우리사회의 모범이 되는 포교사단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영우 기자

“청동대불 시주자는 80대 거사”

해인사 뉴욕타임즈 왜곡보도 강력대응

“시주자는 절대 유력 정치인이 아니다. 시주자는 평생동안 불교신행을 돈독히 해온 서울에 사는 80대 거사로 주지 세민 스님과 30년 인연이 시주의 동기이다”

해인사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시주자를 밝히고 ‘뉴욕타임즈’가 ‘해인사 대불’ 관련 기사에서 ‘시주자가 유력한 정치인’이라는 기사는 오보라고 설명했다.

6일자 ‘뉴욕타임즈’는 해인사 대불건립계획과 수경스님의 반대기교론, 해인사 선방수좌들의 폭력 등을 자세하게 전하면서 “4백만 달러에 달하는 대불건립비용의 기부자중에는 유력 정치인이 다음대선에서 이기도록 해달라는 의도를 담고 있을 것”이라며 이를 포교국장 관암 스님도 인정했다고 인용했다.

해인사는 “기사를 작성한 도교지국장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관암스님이 시주자에 대해서 재별이나 정치인이 아니라고

했는데 기사가 답변과 정반대로 나왔다”며 “뉴욕타임즈의 보도가 자의적인 내용에 바탕한 만큼 강력한 대응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계종 총무원도 뉴욕타임즈기사가 승려를 집단 폭력을 일삼는 조직폭력배로 비화하고, 한국 절을 돈을 벌기 위한 주팔리조트로 소개하는 등 악의적인 왜곡보도에 대해 종단번호사들의 자문을 거쳐 사과 및 정정보도 요구,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해인사 재무국장 현홍, <해인> 편집장 원철삼은 “재가신행단체, 불교 건축, 조경, 환경, 생태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불사를 진행하겠다”며 “문화재청 및 불사자문단의 의견을 청취한 뒤 빠른 시일내 조감도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국고 횡령·주지선출 갈등 송구”

범어사 대중 참회기도

범어사 총무 대책위원회(위원장 중원)는 10일 코모도호텔 총무실에서 국고보조금 횡령과 차기 주지 선출 등을 둘러싸고 불협화음을 겪어온 범어사 사태와 관련 참회기도와 설명회를 개최했다.

참회기도에 이어 열린 설명회에서는 부산지역 신행단체장과 범어사 신도들을 대상으로 범어사 문제 발생과 수습경위를 비롯 향후 수습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중원스님은 “범어사 사태와 관련 심리를 거쳐 송구하다”며 참회

의 뜻을 전했다. 과도집행부 부주지 영환스님은 “차기 주지가 선출되기 전에 총무대책위와의 협의 하에 국고보조금 문제 등에 대한 법적 해결이나 범어사의 뜻을 결집해 나가기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차기 주지 임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9월 20일 이후 산중총회를 개최한 후 원로스님들의 뜻을 포함한 산중 대중들 공의를 수렴하고 종헌 준엄성의 절차를 따라 원만히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천미희 기자

승가대 올예산 26억원

중범스님 총장직 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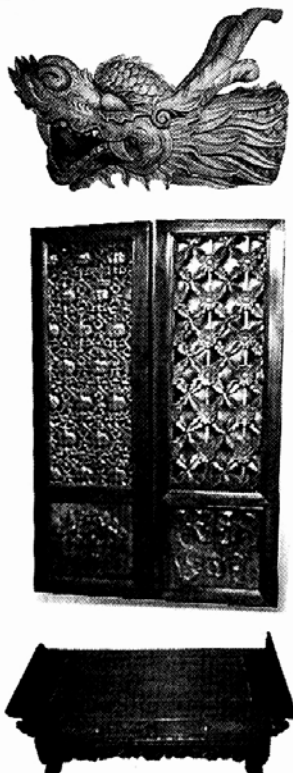
중앙승가대학교 이전대책위원회(위원장 영남)는 10일과 12일 위원회와 실무자회의를 잇달아 열고 중앙승가대 2001학년도 예산을 25억6천만원으로 확정, 18일 열리는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또 학교행정기구 개편안도 이사회에서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이전대책위는 이전팀, 인수팀등 산하조직을 해산하는 한편 중앙승가대와 관련한 행정, 재정, 발전방안 등을 연구 논의하는 ‘종합대책 수립팀’을 구성했다.

안암학사 임대건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임대를 신청한 6개 업체에 대한 자료를 이사회에 제출, 18일 이사회에서 선정토록 했다. 한편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중범스님은 일선상의 이유를 들어 9일 총장직을 사임했다. 한영우 기자

목조각에 혼이 깃든 작품만을 공급하는

성불 조각원



■ 문의  
033)263-1102  
H-P 017)379-0590

최 고 의 작 품 만 을 최 저 의 가 격 으 로 공 급 하 는 불 자 기 업 성 불 조 각 원